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, 게임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선다

- 관계부처·기관 합동 게임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단장: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이하 ‘지원단’)이 게임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섰다. 지원단은 11월 30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(판교)에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(KOCCA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부처·기관과 함께 게임 분야 수출기업을 만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.

< 게임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3.11.30.(목) 14:00~15:30 / 글로벌게임허브센터(판교)
- 참석자 :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나성화 부단장 주재), 문체부, 콘진원, 코트라, 중진공, 한국게임산업협회, 한국모바일게임협회, 게임 업체
- 주요 내용 : 게임 분야 수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 논의

이날 간담회에서 게임 분야 수출기업과 협단체들은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, 해외시장 정보 제공, 전시회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강화 등 게임분야 수출 확대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의 애로를 제기하였으며, 애로 해소방안을 함께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나성화 부단장은 “게임분야는 케이(K)-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대표 분야이자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영역으로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수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지원단은 이번 게임분야를 비롯하여 올해 관광, 교육정보기술(에듀테크(정보통신기술))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다양한 서비스영역에서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투자협력팀	책임자	팀 장	민인영 (02-6000-5793)
		담당자	사무관	지강혁 (jiji11@korea.kr)

